

#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ir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Adaption to Korean School Life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오경화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Kyung Wha Oh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effect of an adolescent's being in a multicultural family, including the psychological, cultural,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his experience, in terms of how it impacts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social competence, and educational adaptation was investigated. 120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who were enrolled in Seoul and Gyeonggi-do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surveye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PASW Statistics v18 program.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psychological, cultural,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family's general economic level and their mother's occupation and nationality. Secondl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with higher self-perception, good accommodation of cross-cultural attitudes in Korean culture and more relationships with Koreans tended to adapt to Korean culture more easily. Thirdl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who adapted to Korean culture more easily could also adapt to school life well, and those who had bet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ore advanced problem-solving skills had better relationships with school friends.

**주제어(Key Words)** : 다문화 가정 청소년(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한국문화수용성(acceptance of Korean culture),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학교생활적응(adaption to school lif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11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더욱 더 가속화되어 미래의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구집단의 수가 늘어 인구구성이 다양해 질 것이므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김성운, 2008). 이제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자아개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학교 공간에도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세대를 위한 적절한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수용하는 주변인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도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한국사회는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 민족에 대한 긍지가 높아 다양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 홍진주, 2006). 따라서 정부에서도 다문화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등을 내 놓고 각 지역에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모선희 외, 2008). 이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하여 문화적 상황적 상황이 문화적응에 도움이 되어 전전한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사회, 문화,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 고찰이 시급하다.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선행연구(조영달, 2006)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학습이해도가 낮고, 단지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환경 및 학습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습결손’,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된다. 그 원인으로 부모의 이중문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혼란, 또래들에 비해 언어능력 및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한국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및 사회생활에의 부적응, 자녀양육 및 부부갈등, 경제적 빈곤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 될 경우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의 출산율을 증가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모선희 외, 2008). 따라서 우리 사회도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다문화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이 절실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나 국가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연구들(금명자 외, 2006; 김정원, 2006; 모선희 외, 2008; 양계민, 정진경, 강혜원, 2008)이 주로 일반청소년들의 개방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나 일반인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성과 개인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변인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자아개념과 한국문화수용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한국인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능동적인 문화 수용에 대한 자세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변인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변인이 한국문화 수용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을 알아본다.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 따른 한국문화수용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3.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다.
4.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사회적 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가정 청소년

다문화란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 따라 각 사회 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하며,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고쳐 부르는 것에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었다(송해경, 2008). 또한, ‘다문화 가정’은 세계가 하나라는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모습의 가정형태로, 성장 환경이 달라 다른 언어와 생활, 교육, 사고방식, 관습 및 문화를 가진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즉 서로 다르지만 가정이라는 한 테두리에 모여 공존하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다문화 가정’이라 표현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이민자 집단의 호스트 사회에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들이 호스트 문화에 점진적으로 동화되어갈지 아니면 독자적인 집단으로 남을지에 관한 논의의 틀이었다. 연구결과 다양한 적응 양상은 이들 이민자 집단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자본과 정착하게 되는 환경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 2세대의 경우, 즉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그들이 겪는 경험은 부모 세대와 다르며 타의에 의한 문화 적응의 스트레스는 부모에 비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 외, 2006).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가정 내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실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로 나누어 한국 사회 적응 실태를 조사한 논문이 주를 이룬다. 김정원(2006)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에서의 취약점, 지원현황,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노총래와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는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적응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복지적 개입방법을 모색하려 하였다. 국제 결혼가족 자녀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적 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금명자 외, 2006),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오성배, 2005)들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비교한 연구(조영달, 2006)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로부터 어머니의 정체성 혼란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주어 자녀 또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업 수행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2. 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이며 자신의 문화만이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라 정의할 수 있다. 민무숙 외(2010)도 다문화수용성을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하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김미진(2010)도 다문화수용성을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인지적 요인,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다른 문화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는 정서적 요인,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족정체성이 자신의 민족집단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에, 문화수용성은 사회의 주류 문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태도 및 정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Sue, Mak, & Sue, 1998). Phinney(1998)는 문화적 수용성을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통합수렴형(integration)은 민족정체성도 강하고 문화적 수용성도 강한 경우, 즉 주류문화와 고유의 민족 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 (2) 수용동화형(assimilation)은 민족정체성은 약하고 문화적 수용성이 강한 경우, 즉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 (3) 분리보존형(separation)은 민족정체성은 강하고 문화적 수용성이 약한 경우, 즉 민족고유문화를 유지, 고수하는 것, 마지막으로 (4) 주변소외형(marginalization)은 민족정체성도 약하고 문화적 수용성도 약한 경우, 즉 주류문화와 민족고유문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외국인과 접촉여부는 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에 대한 태도 및 문화수용성은 교육 수준, 이념성향, 연령, 경제수준, 직업수준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Hainmueller & Hiscox, 2007). 또한 인종 민족관계에서 집단 간 대인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인 중 성별,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직업과 국적 그리고 타문화 유입에 대한 태도와 교류정도를 변인에 포함하였다.

### 3.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으로서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능력'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Ford(1981)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이 포함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또한 Gresham(1984)은 또래와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오혜경, 1999). 따라서 사회적 능력은 청소년이 자신의 활동성이나 사회적 및 학업수행의 적응적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다(Achenbach, 1991).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유아, 취학 전 아동, 혹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이후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강영희, 2006; 고인숙, 2004; Petit, Dofge, & Brown, 1988). 강영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개념과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동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Wentzel(1991)의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 학업성취간의 관계구명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으로 사회적 책임, 사회적 지위, 자기조정과정(목표설정, 대인간 신뢰성, 문제해결)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 세 가지 요인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은 학교생활적응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4. 학교생활적응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는 학습자들이 환경적 제반 여건을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및 신념을 길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청소년들은 가정 못지않게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되며 학교생활만족도는 적응의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최선희, 2010).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논의는 학업 성취도와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환경, 학급분위기와 관계하여 이루어 진다(김희배, 2007). 청소년이 생활하는 환경 중, 학교는 청소년이 성장하여 가정에서 사회로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곳이며 교사와 친구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장일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곳이다(김희배, 2007). 따라서 학교교육은 단순히 지적 기능의 발달이나 기술 습득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천미숙, 2003).

주현정(1998)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교우와 같은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수업에 적극적이며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으로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연령, 학업성적, 교사관계, 교우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유윤희, 1994) 학업성적이 좋을수록(양민철, 1995; 주현정, 1998)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김승미, 1998) 교우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하게 형성될수록(고영복, 1977)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교사는 학생과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는 학생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교사의 시선과 칭찬함마디는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변하게 하고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이 되도록 한다(성미옥, 2003).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수

〈표 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요인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자아개념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76	3.00	28.55 (28.55)	.75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73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2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72			
외국부모 문화의 애정도 <sup>1)</sup>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는 타문화에 비해 뛰어나다	.75	1.38	26.32 (54.87)	.68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73			
	같은 품질이라면 외국브랜드보다는 외국인 부모 나라의 브랜드 제품을 쓰는 편이다	.66			
	다른 나라 보다 외국인 부모 나라가 더 살기 좋은 곳이다	.65			

<sup>1)</sup>외국인인 부모 문화에 대한 애착과 긍지

도권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120명이었다. 표본 대상은 각 학교마다 사전전화통화와 각 기관별 전화통화, 경기도 안산지역에 직접 길거리 설문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표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중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이 추출되었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정 부모의 인종유형을 보면 아버지는 한국인이거나 백인인 경우가 우세하고 어머니는 아시아인이 많았기에(금명자 외, 2006), 본 조사대상도 부모 중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총14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20부를 실제 분석에 투입하였다. 문항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대부분 직접 방문하여 각 문항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우편을 통해 일부 기관에 보낸 경우에도 설문 담당자에게 각문항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은 67.5%, 여학생은 32.5%로 나타났고, 부모의 국적에서 어머니의 국적은 한국 16.7%, 일본 33.3%, 중국 34.2%, 미국 2.5%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국적은 한국 78.3%, 일본 2.5%, 중국 2.5%, 미국 5.0%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은 상 23.3%, 중 47.5%, 하 29.2%로 나타났다. 부모 직업의 분포는 어머니의 직업의 경우 사무직 12.5%, 전문직 16.7%, 종교인 1.7%, 공장 및 노동자 7.5%, 자영업 8.3%, 가정주부 31.7%, 알지 못함 8.3%, 기타 13.3%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30.0%, 전문직 19.2%, 종교인 2.5%, 공장 및 노동자 10.0%, 자영업 15.8%, 알지 못함 5.0%, 기타 17.5%로 어머니는 가정주부(31.7%)가 가장 많으며, 아버지는 사무직(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구성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한국문화수용성에 관한 문항, 사회적 능력에 관한 문항,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영역에서는 이원령과 이순복(2008), 초기원(2010)과 홍세희, 박언하와 홍혜영(2006)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27문항을 제작하였다. 개인적 특성 중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변수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문화수용성과 사회적응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들 변수를 요인 분석하여 하위차원을 밝혔다(초기원, 2010).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과 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심리적변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하위차원으로는 자아개념과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누적변량은 54.86%이며, 각 요인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자아개념 .75,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68로 〈표 1〉과 같다.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 태도, 느낌 등을 모두 포괄하는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됨을 뜻한다.

개인적 특성 중 문화적변수는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다문화의 접촉가능성이 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9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들 타문화유입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하위차원으로는 문화유입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누적변량은 58.17%이며, 각 요인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타문화유입에 대한 태도는 .77, 타문화유입에 대한 행동 .79로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 요인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타문화유입에 대한 태도	타문화와 관련된 방송을 보면서 타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77	3.12	31.03 (31.03)	.77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싶다.	.76			
	TV에서 다문화 가정의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76			
	헐리웃 영화나 한국 영화들이 재미있다.	.69			
	외국 가수와 영화배우에 대해서 잘 안다.	.55			
타문화유입에 대한 행동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84	2.11	27.14 (58.17)	.79
	여러 나라의 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	.82			
	해외 가수 및 영화배우의 작품을 많이 접한다.	.79			
	외국 방송을 자주 시청한다.	.62			

상황적 변수로는 교육과 관계와 경험의 측면이 있으므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받은 경험과 한국인과의 관계나 한국문화 체험에 관한 10문항을 추출하였다(초기현, 2010).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 하위차원으로는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인과의 관계의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누적변량은 53.59%이며, 각 요인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한국문화교육 .75, 한국인과의 관계 .85로 〈표 3〉과 같다.

2) 한국문화 수용성

한국문화수용성에 관한 문항으로 양계민(2009)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한국의 관습, 문화, 한국인에 대한 수용도에 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이를 요인분석 한 결과, 〈표 4〉와 같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3 이었다.

3)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에 관한 문항은 최진승, 박금옥과 박경옥(1997), 금명자 외(2006)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총 1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능력을 묻는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과 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사회적 능력을 묻는 14문항에 대하여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설명력은 60%이며, 각 요인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대인관계 .68, 공동작업 .71, 책임감 0.67, 문제해결 0.53 로 나타났다.

각 요인 별 특성을 살펴보면, '요인1'은 친구들과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임을 잘 주도해 나가며, 여러 명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인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면 잘 설득시키며,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동 작업'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학교 교육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일도 내 나름대로 잘 처리하며, 친구들과 심한 논쟁은 하지 않는다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책임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 중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른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2

〈표 3〉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상황적 특성 요인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한국문화교육	한국인과 협력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79	3.62	34.91 (34.91)	.75
	한국어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	.77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이나 워크샵에 참여한 적이 있다	.69			
	문화 간 유사점 차이점 특징 등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	.65			
한국인과의 관계	한국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적이 많다	.78	1.54	18.68 (53.59)	.85
	한국인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많다	.77			
	한국인과 같이 생활한 경험이 있다	.77			
	한국가정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73			
	학교에 친한 한국인 친구가 많다	.71			
지역사회에 한국인 친구나 친지 등 지인이 많다	.70				

〈표 4〉 한국문화 수용성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한국문화 수용성	나는 마음이 맞다면 한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85	6.86	57.18 (57.18)	.93
	문화 시장 다양화가 모국과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81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	.80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 모국 문화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80			
	한국의 음식에 잘 적응한다	.78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모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77			
	부모님을 모시는 한국의 풍속을 이해한다	.76			
	어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73			
	한복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72			
	한국의 인사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70			
	한국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싶다	.65			
	한국의 장례나 제사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61			

〈표 5〉 사회적 능력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대인관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함	.71	4.37	31.25 (31.25)	0.68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계속함	.67			
	나는 여러 명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함	.63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잘 주도해 나감	.62			
	나는 주위 사람들이 충고하면 고맙게 생각함	.62			
공동작업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친구들이 좋아함	.70	1.69	12.12 (43.37)	0.71
	친구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면 잘 설득시킴	.68			
	나는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 줌	.61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참석함	.60			
책임감	나는 친구들과 심한 논쟁은 하지 않음	.79	1.22	8.76 (52.13)	0.67
	나는 학교 교육을 잘 따르려고 노력함	.66			
	나는 어려운 일도 내 나름대로 잘 처리함	.62			
문제 해결 능력	나는 혼자서 결정을 잘 함	.82	1.18	8.44 (60.57)	0.53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 중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잘 판단함	.75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제해결능력’이라고 명명하였다.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는 영역에서는 박경희(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총14문항에 대하여 총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설명력은 57%이며, 각 요인문항의 신뢰도 검증에 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학습수행 .83, 교우관계 0.74, 학급분위기 0.64로 나타났다.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요인1’은 학교공부에 정신집중이 잘 안되며, 공부에 대해 진정한 흥미가 없고, 시험 치르는 일이 걱정되어 학교생활이 늘 부담스럽다는 학교공부에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업수행’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학급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를 사귀면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각 교과 수업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우관계’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학급 친구들은 협동심이 강하고,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집단따돌림을 당할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급분위기’로 명명하였다.

〈표 6〉 학교생활적응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학업수행	나는 학과공부에 정신집중이 잘 안됨	.81	4.06	29.03 (29.03)	0.83
	나는 공부에 대해 진정한 흥미가 없음	.81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가 없음	.75			
	나는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별로 없음	.71			
	나는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잘 모름	.59			
	시험 치르는 일이 걱정되어 학교생활이 늘 부담스러움	.68			
교우관계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심	.74	2.75	19.65 (48.68)	0.74
	나는 학급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67			
	각 교과목의 수업내용을 잘 이해함	.66			
	나는 일단 친구를 사귀면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함	.63			
	학교에는 나와 사이좋은 친구들이 많음	.59			
학급 분위기	우리학급 친구들은 협동심이 강함	.79	1.25	8.76 (57.65)	0.64
	나는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움	.77			
	집단따돌림을 당할까 걱정한 일이 없음	.59			

〈표 7〉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의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경제적 수준)	평균	F값
심리적 특성	자아개념	상	3.9167 <sup>a</sup> A <sup>1</sup>	8.361***
		중	3.3170 B	
		하	3.2786 B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상	3.1481	.163
		중	3.1357	
		하	3.2114	
문화적 특성	타문화유입 태도	상	3.8929 A	8.608***
		중	3.2971 B	
		하	3.2561 B	
	타문화유입 행동	상	3.2054	.573
		중	3.1754	
		하	3.0000	
상황적 특성	한국문화교육	상	3.5119	2.315
		중	3.1462	
		하	3.0909	
	한국인과의 관계	상	4.2232 A	6.284***
		중	3.6364 B	
		하	3.5965 B	

a: 5점 리커트 척도(1~5점)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값, 점수가 클수록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 점수가 높음을 의미함  
 1: 던컨 테스트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숫자의 순서는 크기순서와 같음  
 \*\*\* $p < .001$

3.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v1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다변량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

인구통계적 변인 중 성별,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국적과 직업에 따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7〉, 〈표 8〉과 〈표 9〉에 나타내었다.

〈표 8〉 부모의 직업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의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직업)	평균(모)	F값	평균(부)	F값	
심리적 특성	자아개념	사무직	3.5357 B	2.351**	3.5515	1.616
		전문직	3.7750 <sup>a</sup> A <sup>1</sup>		3.4022	
		종교인	3.5000 B		4.0000	
		공장 및 노동자	2.8889 C		3.1667	
		자영업	3.0000 C		3.1316	
		가정주부	3.5526 B		-	
		알지못함	3.1944 C		3.6667	
	외국부모문화의 예정도	사무직	3.2000	1.085	3.1471	.389
		전문직	3.2800		3.2174	
		종교인	2.9000		3.2000	
		공장 및 노동자	2.9111		3.3000	
		자영업	2.8600		3.0526	
		가정주부	3.2632		-	
		알지못함	2.9111		3.3667	
문화적 특성	타문화 유입 태도	사무직	3.4133 B	2.280**	3.3556 B	2.149*
		전문직	3.5700 B		3.5478 B	
		종교인	3.6000 B		4.0667a A <sup>1</sup>	
		공장 및 노동자	3.0000 C		3.0000 C	
		자영업	3.0600 C		3.1789 C	
		가정주부	3.6316 A		-	
		알지못함	2.8800 C		3.6667 B	
	타문화 유입 행동	사무직	2.7333	.954	2.9514	.948
		전문직	3.3000		3.3152	
		종교인	2.6250		3.4167	
		공장 및 노동자	2.9444		3.1042	
		자영업	3.0500		3.0000	
		가정주부	3.2763		-	
		알지못함	3.0000		3.6667	
상황적 특성	한국문화교육	사무직	3.2000	.990	3.0000	1.390
		전문직	3.5500		3.3478	
		종교인	3.5000		3.5556	
		공장 및 노동자	3.0000		3.5152	
		자영업	3.0667		3.2105	
		가정주부	3.2883		-	
		알지못함	3.1111		2.6667	
	한국인과의 관계	사무직	3.6333 B	1.781*	3.6857	.435
		전문직	3.9875 A		3.8804	
		종교인	3.3750 C		3.9167	
		공장 및 노동자	3.3056 C		3.8182	
		자영업	3.3000 C		3.5395	
		가정주부	3.9324 A		-	
		알지못함	3.4167 B		3.9583	
기타	3.9631 A	3.8214				

a: 5점 리커트 척도(1~5점)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값, 점수가 클수록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 점수가 높음을 의미함  
 1: 던컨 테스트 결과  $p < .05$ ,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숫자의 순서는 크기순서와 같음  
 \* $p < .05$ , \*\* $p < .01$

성별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심리적 특성 중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에서만 남학생이 3.09, 여학생이 3.29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의 <표 7>와 같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서 자아개념, 문화적 특성에서 문화유입 태도, 상황적 특성에서 한국인과의 관계경험이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던컨 테스트 결과 경제적 수준이 '상' 인 집단일수록 자아개념(평균값 3.91)이 높아 자신감이 높았으며, 문화유입태도(평균값 3.90)도 높아 타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황적 특성에서도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한국인과의 관계형성을 더 잘하고 있어 타문화에 대한 습득이 빠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부모의 직업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그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자아개념, 타문화유입태도와,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타문화 유입태도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컨 테스트 결과,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 인 경우 심리적 특성에서 자아개념과 상황적 특성에서 한국인과의 관계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 특성에서 타문화유입 태도의 경우는 모의 직업이 '가정주부' 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가정주부인 경우 자녀들의 자아개념이 높고 주변 한국인들과의 관계형성이 잘되며 타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타문화유입 태도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종교인' 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공장노동자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존엄성이 자녀의 타문화유입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부모의 국적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의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국적)	평균(모)	F값	평균(부)	F값	
심리적 특성	자아개념	한국	3.7368 <sup>a</sup> A <sup>1</sup>	6.467***	3.3495 B	4.950***
		일본	3.6125 A		4.5000 A	
		중국	3.1563 B		4.2500 A	
		미국	2.4167 C		3.0833 C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한국	3.4211 A	4.508***	3.1204	.868
		일본	3.3000 B		3.3333	
		중국	2.9100 C		2.6000	
		미국	2.6667 C		3.1000	
문화적 특성	타문화유입태도	한국	3.7700 A	4.383***	3.2915 B	7.258***
		일본	3.4950 B		4.4667 A	
		중국	3.1902 C		4.4000 A	
		미국	2.7333 C		2.8667 C	
	타문화유입행동	한국	3.2750	.402	3.0532 B	3.759**
		일본	3.1187		2.3333 C	
		중국	3.0793		4.4167 A	
		미국	2.7500		3.0000 B	
상황적 특성	한국문화교육	한국	3.3333	.739	3.1413	.842
		일본	3.1583		3.3333	
		중국	3.0750		3.8889	
		미국	2.6667		3.0556	
	한국인과의 관계	한국	4.0375 A	4.194***	3.6304 C	2.493*
		일본	3.9000 B		4.2500 B	
		중국	3.5063 C		4.7500 A	
		미국	2.7500 C		3.5417 C	

a: 5점 리커트 척도(1~5점)에 대한 응답점수의 평균값, 점수가 클수록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 점수가 높음을 의미함  
 1: 던컨 테스트 결과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숫자의 순서는 크기순서와 같음  
 \* $p < .05$ , \*\* $p < .01$ , \*\*\* $p < .001$

인구통계적 변인 중 부모의 국적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서는 심리적 특성에서 자아개념, 자문화 애정도, 문화적 특성에서 타문화유입 태도, 상황적 특성에서 한국인과의 관계가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던컨테스트 결과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한국인 어머니를 둔 청소년이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 중국 또는 미국인 경우 보다 자아개념, 외국부모문화외에정도, 타문화유입 태도, 및 한국인과의 관계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국적이 자녀들의 한국문화적응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서는 심리적 특성에서 자아개념, 문화적 특성에서 타문화유입태도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타문화유입행동은  $P < .01$ 수준에서, 상황적 특성에서 한국인과의 관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던컨테스트 결과, 아버지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 자아개념과 타문화유입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국적이 중국인인 경우 타문화유입 행동과 한국인과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한국인과의 관계를 가질 기회가 높아져 타문화를 수용하는 성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국적과 직업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영향이 아버지의 영향보다 컸으며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가정주부인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주부일 경우 자녀들의 가정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자녀의 사회문화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자녀들이 한국인과의 관계를 가질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주변 사회로의 동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고 타문화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금명자 외(2006)의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을 갖지 않고 가정주부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가정주부인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았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 또한 부모의 자녀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자영업이나 노동자 보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부모가 종사할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수용태도에 부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높다는 양계민 외(2008)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인 차별을 더 경험해 자아개념이 낮고 한국인과의 관계형성과 문화수용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이 한국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성에는 자아개념( $\beta = .21, P < .001$ )과 타문화유입 태도( $\beta = .24, P < .001$ ), 한국인과의 관계( $\beta = .43, P < .001$ )가 가장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역할의지가 강해서 자신감이 높아 한국문화수용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국인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경험이 많아질수록 한국문화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에서 부모, 이웃, 교우, 교사관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을 수 있는 교육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양계민 외, 2008; 윤인진, 2008;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자아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계속 수정되고 변화되는 것이므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시기에 주위의 관심과 격려로 점진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금명자 외(2006)의 연구에서도 일반 청소년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대안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한국학생들과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더 잘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 3.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1>과 같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능력 중 대인관계는 심리적 특성에서 자아개념( $\beta = .26, P < .001$ )과 문화적 특성에서 타문화유입태도( $\beta = .46, P < .0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개념이 높고 빠르게 문화를 받아들일수록 여러 사람들과 쉽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작업 요인에는 심리적 특성에

〈표 10〉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 따른 한국문화수용성의 차이

종속변수	독립변수(개인적 특성)	$\beta$	$t$	$F$	$R^2$	
한국문화수용성	심리적특성	자아개념	.212	2.801***	27.742***	.583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108	1.533		
	문화적특성	타문화유입태도	.244	3.080***		
		타문화유입행동	-.058	-.892		
	상황적특성	한국문화교육	-.010	-.149		
		한국인과의 관계	.430	5.311***		

\*\*\* $p < .001$

〈표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개인적 특성)	$\beta$	$t$	$F$	$R^2$		
사회적 능력	심리적특성	자아개념	.263	2.795***	10.784***	.338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106	-1.240			
	대인관계	문화적특성	타문화유입태도	.463			4.281***
		타문화유입행동	.043	.517			
	상황적특성	한국문화교육	.114	1.343			
		한국인과의 관계	-.030	-.296			
	공동작업	심리적특성	자아개념	.198			2.090*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066	-.757			
		문화적특성	타문화유입태도	.186			1.824
			타문화유입행동	.126			1.519
	상황적특성	한국문화교육	-.036	-.42			
		한국인과의 관계	.320	3.109***			
책임감	심리적특성	자아개념	.064	.571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105	1.023				
	문화적특성	타문화유입태도	.141	1.170			
		타문화유입행동	.053	.533			
상황적특성	한국문화교육	.076	.746				
	한국인과의 관계	.031	.257				
문제해결능력	심리적특성	자아개념	.251	2.248*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062	-.612			
	문화적특성	타문화유입태도	-.010	-.087			
		타문화유입행동	-.183	-1.876			
	상황적특성	한국문화교육	-.139	-1.378			
한국인과의 관계	.157	1.301					

\* $p < .05$ , \*\* $p < .01$ , \*\*\* $p < .001$

서 자아개념( $\beta = .20, P < .05$ )과 상황적 특성에서 한국인과의 관계( $\beta = .32, P < .001$ )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작업 수행능력은 자아개념이 높고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맺은 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개념이 높아야 남을 잘 설득시킬 수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올수록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본다. 금명자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중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대

안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보다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또래 한국인들과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책임감은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 요인에는 심리적 특성에서 자아개념( $\beta = .251, P < .05$ )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사회적 능력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t$	$F$	$R^2$
학업수행	한국문화수용성	.190	4.648***	167.064***	.877
	공동작업	.823	19.705***		
	대인관계	-.004	-.087		
	책임감	.040	1.112		
	문제해결능력	.002	.046		
학교생활적응	한국문화수용성	-.009	-.353	414.795***	.947
	공동작업	.027	.965		
	대인관계	.787	28.285***		
	책임감	-.013	-.563		
	문제해결능력	.678	29.865***		
학급분위기	한국문화수용성	.174	2.134*	25.399***	.513
	공동작업	.020	.246		
	대인관계	.514	6.101***		
	책임감	.230	3.217**		
	문제해결능력	.005	.075		

\* $p < .05$ , \*\* $p < .01$ , \*\*\* $p < .001$

4.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금명자 외(2006)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학업문제와 관련된 학교생활이라고 하였기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성과 사회적 능력이 학교생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학교생활적응 중 학업수행에 대한 적응도는 한국문화 수용성( $\beta = .20, P < .001$ )과 사회적응능력 중 공동작업( $\beta = .82, P < .001$ )수행능력이 가장 많이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동료들과의 공동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우수할수록 학업수행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작업 수행능력은 자아개념이 높고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맺은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학업성취도를 높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자주 관계를 맺어 이들이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지고 한국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다문화수용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윤희, 1994).

학교생활적응 중 교우관계에는 한국문화수용성이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적 능력 중 대인관계( $\beta = .79, P < .001$ )와 문제해결능력( $\beta = .68, P < .001$ )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생활적응 중 학급분위기에 적응하는 데는 한국문화 수용성( $\beta = .17, P < .05$ )과 사회적 능력에서 대인관계( $\beta = .51, P < .001$ ), 책임감( $\beta = .23, P < .001$ )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보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책임감이 있을수록 학교 학급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미숙(2003)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들이 한국문화 수용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성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 중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변수가 한국

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들 변수를 요인 분석하여 하위차원을 밝혔다. 심리적 변수를 요인분석한 결과 하위차원으로는 자아개념과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문화적변수의 하위차원으로 타문화유입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상황적 변수로는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인과의 관계의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구 통계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들은 경제적 수준과 모의 직업과 국적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타문화유입태도도 높아 타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인과의 관계도 좋아 한국문화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모의 직업에 따라 자아개념, 타문화유입태도와, 한국인과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타문화유입태도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는 모의 국적에 따라서는 자아개념, 외국부모문화의 애정도, 타문화유입태도 및 한국인과의 관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의 국적에 따라서는 자아개념과 타문화유입태도와 행동 및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 따른 한국문화수용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자아개념이 높고,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리고 한국인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경험해 볼수록 한국문화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에서 부모, 이웃, 교우, 교사관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이 타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인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아개념이 높고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대인관계가 좋다는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개념이 높고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가진 경험이 많을수록 공동작업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개념이 높아야 남을 잘 설득시킬 수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올수록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본다. 반면, 책임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자아개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과 자아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한국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동료들과의 공동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우수할수록 학교생활 중 학습수행에 대한 적응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와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학급분위기에 적응하는 데는 한국문화수용성과 대인관계, 책임감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책임감이 있을수록 학급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세대를 위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을 수용하는 주변인 등의 태도에 대한 교육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학교교육은 중요한 공적 사회화 과정이므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단편적인 한국문화소개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인들과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영희(2006).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능력과 학습성취도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복(1977). **현대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 고인숙(2004).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GOVP1200712293.
- 김미진(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승미(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3), 95-129.
- 김희배(2007). 중학생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 경기 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김성운(2008).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 02.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조영기, 류정아(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개발**.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박경희(2008).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옥(2003).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승혜경(2008).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20(4), 387-421.
- 양계민, 정진경, 강혜원(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8-R07.
- 양민철(1995).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적간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아(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혜경(1999). WBI에서 피드백 유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정답제공형과 관련정보제공형의 비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윤인지, 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143-192.
- 이원령, 이순복(2008). 영재아동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능력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169-189.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2007).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 학생 수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7-05.
- 주현정(1998). 고등학교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미숙(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초기환(2010). 인터넷과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최선휘(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승, 박금옥, 박경옥(1997).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10(2), 95-126.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어성정책연구원.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재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검증. **한국 청소년 연구**, 17(2), 241-263.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Ford, M. 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Gresham, F. M.(1984). Social skills and self - efficacy for exceptional children ; A refocusing of the mainstreaming process. *Exceptional children*, 51, 253-261.
- Hainmueller, J., & Hiscox, M. J.(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 399-449.
- Petit, G. S., Dofge, K. A., & Brown, M. M.(1988). Ear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Phinney, J. S.(1998).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In P. B. Organista, K. M. Chun, & G. Marin (Eds.). New York: Routledge.
- Sue, D., Mak, W. S., & Sue, D. W.(1998). *Ethnic identity*. In L. E. Lee & N. Zane (Eds.), *Handbook of Asian American psycholog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Wentzel(1991). Relation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접 수 일 : 2011년	8월	19일
심사시작일 : 2011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7일